

부활의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24:1-12)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동력이자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며 근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신앙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갔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던 데다가 경비병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이 무덤에 간 까닭은 그것이 예수님을 설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니 무덤 입구의 큰 돌은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며, 무엇보다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마음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 부활을 전하는 천사들

■ 무덤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을 일부러 무덤 안에서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어두운 빈 무덤 안을 다 둘러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곳입니다. 어둠과 절망만 남아 있는 곳입니다. 부활은 그런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 차원을 넘어서 생명과 소망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어두운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사장에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셨으며,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어두운 무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임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요 11:43-44). 예수님의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 부활의 증인들

■ 여인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간 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가장 먼저 그 일을 경험했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자였습니다(눅 8:2-3). 그녀는 끝까지 무덤에 남아 있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듯 인생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베드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통해 베드로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실수와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신앙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어두운 무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의 예배를
人生이 바뀐다

안나팀 김광자 성도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인생 간증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갑자기 교회에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를 했지만 출가 외인이라 그냥 두었는데 교회 다닌 지 1년 후에 작은 손녀 딸을 전도하여 같이 교회를 다니더니 방언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남편과 저를 계속 교회 나가자고 사정을 하는데 시집가서 53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살았기에 저는 끔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딸이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딸만 보면 눈물만 나왔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1년 반 동안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딸은 교회만 나오면 천당 갈 수 있다고 계속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남편이 먼저 교회 나가자

고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딸의 질병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마음이 낮아져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지루하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유방암이 나아갈 때 즈음 제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담담했지만 암이 발견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간으로 전이되었고 암담한 마음에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에 그 해 주신 말씀을 간절히 외우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면서 눈 뜰 때마다 계속 말씀을 외우는데 하나도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그 후에 담도도 또 전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중 어느 팀에서 성경 필사를 하는데 너무 좋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도 9월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이다 보니 통증이 있고 순간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쓰면 새벽이고 아침이고 쓰게 되고, 아프지 않을 때는 3~5시간씩 쓰게 되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질병을 겪고 나니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당해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마음 아프고 이제부터는 하늘의 꽃만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며 아침저녁으로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서 잘 때까지 기도를 하게 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동네 나가서 수다를 떨고 텃밭을 가꾸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밥을 하면서도 아이폰으로 성경을 듣고, 성경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다는 절실한 마음에 내가 살아있고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걸을 수 있고 허리도 꼬부라지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내 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쫓아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생활보호사님이 오시면 나더러 센 척하지 말고 아픈 척 좀 하라며 언제 확 갈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제발 일 좀 많이 하셔서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일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 듣고 나면 제 아픈 몸이 가라앉는 것 같고 참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현재는 약도 없고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자 같지가 않다고 물어봅니다. 말도 잘하고 잘 웃는 거 보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생활보호사님은 왜 겁이 안 나느냐고 묻습니다. 난 하나님 백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합니다. 다섯 번이나 전기가 되었는데 원만하면 자리에 드러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저도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성경 필사를 쓰고 나서부터는 다 변한 것 같습니다. 첫째 내 마음이 변하고, 누구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도 내가 스스로 먼저 가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생전에 성경 필사를 쓰게 된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기쁨의 교회 뜻대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기쁨의교회 방송 설교 안내 - CTS TV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생명의 말씀
1) 케이블TV: 용인(기남방송 222번), 광주(C&M 700번) 2) IPTV: Sky Life 183번, KT olleh TV 236번, Btv 551번, U+ 180번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서울국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국동 방송 서울,경기: 106.9 MHz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영동국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국동 방송 강원 영동: 90.1 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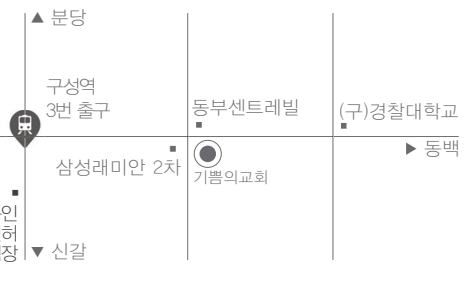
▶ 기쁨의 교회 사역전력



▶ 기쁨의 교회 특징 10가지

- | | |
|--------------------|--------------------|
| 1.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 6. 교제가 풍성한 교회 |
| 2.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 7.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
| 3. 찬양이 살아 있는 교회 | 8.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교회 |
| 4. 전도와 간증이 있는 교회 | 9.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
| 5. 섬김의 삶을 사는 교회 | 10. 제자를 세우는 교회 |

▶ 기쁨의 교회 오시는 길



▶ 분당

구성역 3번 출구

동부센트레빌

(구)경찰대학교

동백

삼성래미안 2차

기쁨의교회

용인 면허 시험장

신갈

▶ 대중교통 안내

[지하철 / 버스]

▶ 신논현역 7번 출구 또는 강남역 5번 출구 → 1241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 동일하이빌차 하차

▶ 구성역(수인분당선 GTX)3번출구 → 31, 33, 34-2, 670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 동일하이빌차 하차

현금 온라인 계좌 안내

- | | | |
|-------------------|------------------|---------------|
| ● 주일현금 : SC제일은행 | 572-20-230777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십 일 조 : KEB하나은행 | 630-006691-277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감사현금 : SC제일은행 | 572-20-308622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건축현금 : 국 민 은 행 | 402601-04-012600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선교현금 : SC제일은행 | 572-20-179152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카라건축 : SC제일은행 | 572-20-305118 |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 ● 카라일반 : SC제일은행 | 572-20-305129 |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 ● 카라장학 : SC제일은행 | 572-20-321620 |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2025년 교회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OPEN YOUR MOUTH WIDE
PSALMS 81:10



담임목사 정 의 호

제2025-18호 통권 6890호

4월 27일



기쁨의교회

JOYFUL CHURCH

■ 기쁨의교회는 3,000여 교회 및 선교단체와 6개의 신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 독립교회 선교 단체 연합회(KAICAM)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6 Tel. 031-713-0691 Fax. 031-713-0692
MTC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119 Tel. 031-711-0191

